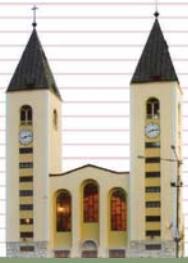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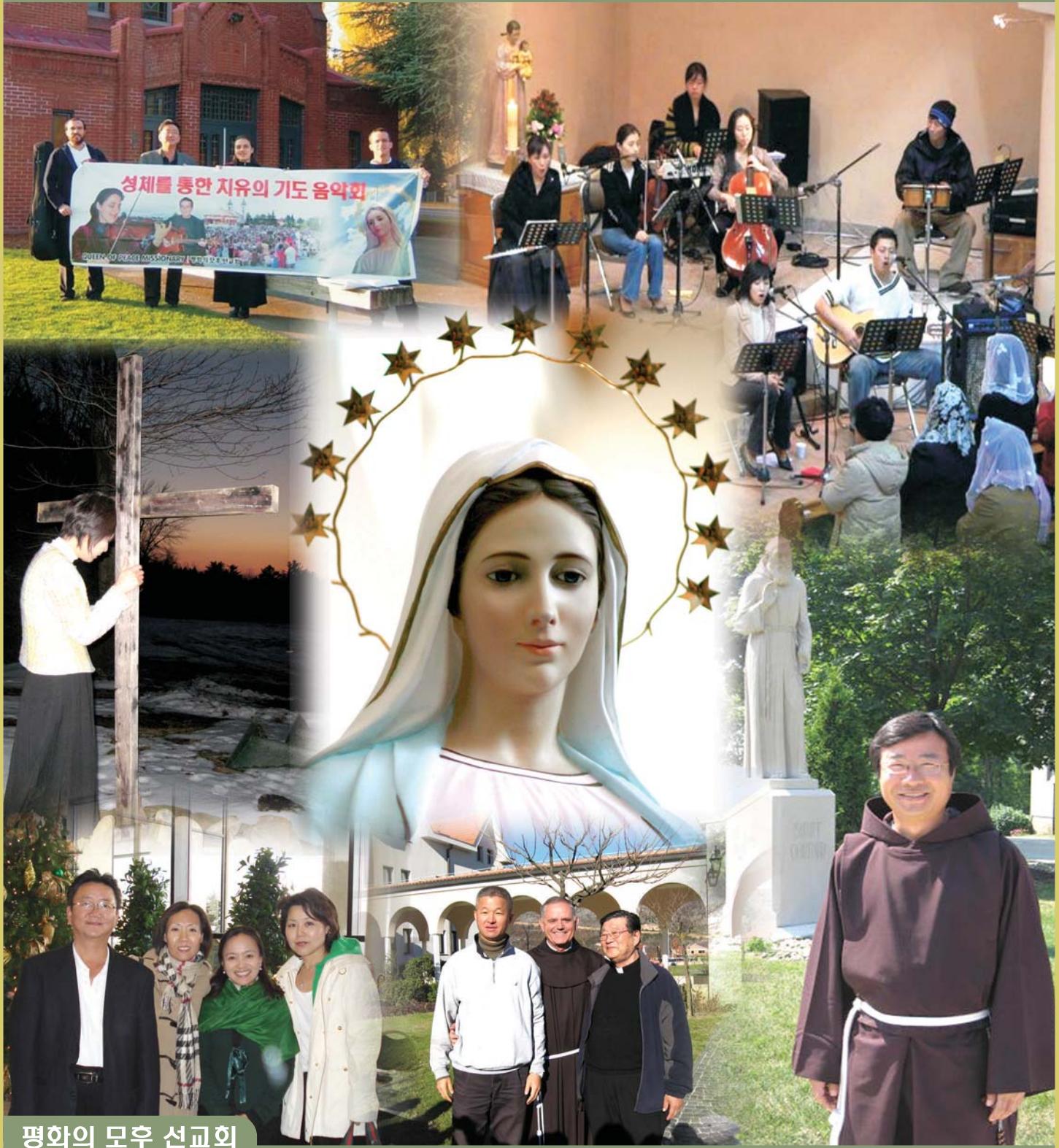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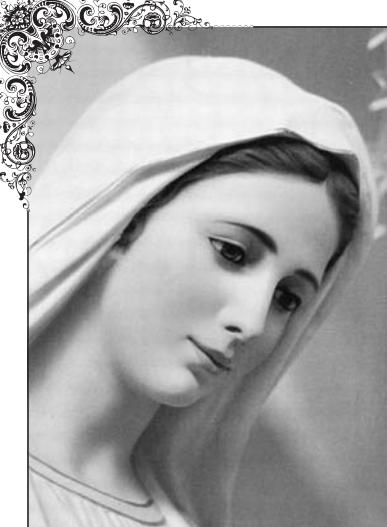
메주고리예



Medjugorje

August, 2008 제45호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육신의 휴식을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나는 회개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너희 마음이 너희 영혼과 몸에 참된 휴식을 주시는 창조주 하느님을 갈망하도록 기도하고 일하여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하느님 대전에서 전구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8년 7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성모님과 함께하는 여정

2008년 7월 27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인근 앤리슨 파크에 소재한 St. Conrad 카푸친 프란치스코 수도원에서 신경남 스 테파노 신부님의 착복식이 있었습니다. 신경남 신부님은 1990년 서울 대교구 사제로 서품되어 2004년 미국 뉴욕 포담 대학에서 종교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신 신부님은 2007년 옥수동 성당 주임신부를 끝으로 서울 대교구를 떠나 미국 펜실베니아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셨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로 일하고 계십니다.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지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어머니 마을과 봉사자들을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들과 봉사자들을 봉헌합니다.
 -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의 성모 신심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후원회원들을 봉헌합니다.
 - 죽은 모든 연옥영혼들과 낙태아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드립니다.
 - 남편 OOO의 진정한 회개와 정결한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주님을 믿지않는 불쌍한 영혼들과 낙태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아내OOO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 세 아들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제되기를 청합니다.
 - 명프란치스코 신부님께 영유간에 은총 충만히 내려주소서.
 - 주님의 축복으로 저희 가정이 기도하고 봉사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마리아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느님께 영광돌리는 딸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어머니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시고 평화를 주소서.
 - 성모님, 재정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와 용기의 은총을 청하여 주소서.
 - 셋째아들의 마약중독과 마음의 공허함을 치유해주소서.
 - 무속에 빠져 하느님을 모르고 있는 큰 누나가정에게 회개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소서.
 - ooo가 알콜중독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 오빠와 동생, 부모님을 늘 은총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평화를 잃어버린 가정과 상처 받은 아이들을 위하여…
 - 늘 가족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 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둘째에게 가장의 임부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암으로 고생하시는 OOO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미숙아로 태어나 첫돌을 맞이하는 손녀 엔젤라를 축복하시고 지켜 주소서.
 - 성모님, 카네티켓 본당 발전을 위하여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 요셉을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세상 모든 젊은이들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 힘들고 지친 고3 수험생 ooo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어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 저희 부부와 아들을 늘 보살펴 주시고 축복과 은총으로 환히 밝혀 주소서.
 -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되도록 오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 손자의 가정에 사랑, 평화, 용서를 주시며 남편이 알콜중독에서 치유되게 해주세요.
 - 시부모님이 서로 용서하게 해 주시며 세번째 수술의 위험에서 성모님께 의지하게 해 주세요.
 - 암의 고통에 시달리는 시아버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돌보아주세요.
 - 언니와 동생들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과 경제적인 안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OO형제와 두 아이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올바른 앞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및 성시간에도 모든 기도 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7월 매주고리에 순례때와 요조신부님과 백요셉 마리아 신부님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테리, 나를 잊지 마라.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테리 오커너 신부 (미국 피츠버그 교구)

"저는 미국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교구소속의 테리 오커너신부입니다. 지금 피츠버그 앰브리지의 착한 사마리아 성당과 베이든 성 세례자 요한 성당의 주임신부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사목하고 있는 성당과 근접한 마을 비비에서 카푸친 작은 형제회 소속이신 신경남 스테파노 신부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지도 신부님이신 신 신부님을 통해 한국 가톨릭 신자들에게 메주고리예와 성모님께 대한 저의 체험담과 함께 저를 소개하는 인사를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2006년 9월 1일, 뇌암으로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 밥 오커너(Bob O'Connor)는 얼마 전까지 피츠버그 시장직을 맡고 계셨던 분입니다. 2006년 1월 시장으로 취임하신 아버지는 탁월한 비즈니스 감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매우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유머가 많으셔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인기를 한 몸에 받으시던 매우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2006년 7월 6일, 갑자기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검사를 받으시던 아버지의 뇌에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암은 티셀 림프종(T-Cell Lymphoma)이라는 일종의 혈액암으로서,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을 가진 암이었습니다. 2개 월의 짧은 투병 생활중에 아버지는 2006년 9월 1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평소에 아버지의 삶을 대변해주듯이 장례식에는 아주 먼 곳에서까지 다양한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함께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워싱턴 대교구장이시지만, 그 당시 피츠버그 교구장이셨던 도널드 우얼(Donald W. Wuerl)대주교님께서 아버지의 장례 미사를 집전해주셨으며 제가 강론을 했습니다.

저는 강론에서 아프신 아버지와 함께 하는 동안 성모님께서 제게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오셨는지를 회상하면서 아버지의 장례미사 참석했던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암치료를 받으시던 첫 날, 저는 아버지 병상 옆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편히 쉬고 계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저는 무사히 회복되실 수 있을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앉아 있던 저는 갑자기 마치 이전부터 늘 제 곁에 함께 하고 계셨던 것처럼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뚜렷하게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테리, 나를 잊지 마라.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너무나 분명한 성모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은 저는 아버지의 병이 완전히 치유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모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의 영혼을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 맡겨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 미사가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메주고리예 순례를 위해 설립된 단체인 Mother's Pilgrims의 공동설립자인 캐시 호웨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캐시는 2006년 11월 요조 신부님과 함께 미사를 공동 집전하도록 저를 초대했습니다. (역자주: 요조 신부님은 평화의 모후 선교회 초청으로 2006년 11월 미국을 방문하시어 12곳의 한인 공동체와 미국, 히스페닉 공동체를 대상으로 강론과 피정 지도를 해주셨다. 캐시는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공동으로 요조 신부님을 피츠버그 근처 웨스포드로 초대했고, 당시 테리 신부님은 그곳 다른 본당에서 사목하고 계셨다).

메주고리예에 대해 들은 바는 있지만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저는 "요조 신부님이 누구냐?"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고 물었습니다. 캐시는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발현 초기때부터 그분이 겪었던 지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메주고리예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메주고리예는 제 마음을 사로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조 신부님과 공동으로 미사를 집전하면서 그분은 정말 거룩한 분이심을 체험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성당을 떠나기 전에 저는 만나본 적도 없는 캐시가 저를 이 미사에 초대해준데 대해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서 어떤 여자에게 캐시 호웨를 만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분의 이름은 게일 부스였고, 메주고리예 도움을 주는 St. Clare Helper of the Poor의 공동설립자였습니다. 게일은 메주고리예 달력을 주었고, 저는 감사를 표하면서 언젠가 나도 메주고리예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게일은 제게 자기 명함을 주면서 "저희가 신부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제쯤 메주고리예에 갈 것인지 묻는 제게 게일은 "2007년 1월에 갑니다."라고 대답했고, 저는 그 초대를 기꺼히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조 신부님과의 미사를 마치고 성당을 나서기 전에, 저는 메주고리예를 가보고 싶은 마음에, 2007년 1월정도면 제가 메주고리예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떠난 메주고리예 순례에서 저는 그곳의 매우 영적이고 강력한 힘을 느끼고 그 마을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시는 메주고리예에서 엄청난 평화를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야고보 본당에서 드리는 미사와 성시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의 고해를 듣는 시간들은 저에게는 또 다른 놀라운 체험의 연속이었으며 발현산과 십자가산을 오르며 기도하는 시간들 또한 제게 정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게일이 이끈 저희 그룹은 시로키 브리엑에 있는 요조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여자 아이들이 있는 성 가정 고아원에서 4박 5일 동안 피정을 했습니다. 그 피정에 참가하면서 체험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게일이 저에게 앞으로 요조 신부님 피정에 참석할 사람들이 받을 은총을 위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은 강의실에서 요조 신부님께서 지도하는 기도 시간이었는데, 그때 저는 성모님께서 제 마음 안에 매우 가까이 현존하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은 복되신 동정녀에 대한 매우 심오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리 일행들은 성시간을 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경당으로 갔습니다. 저는



Holy Family Prayer Group

그곳에서 이전처럼 제 마음안에 현존하시며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성모님을 또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할 소중한 체험들이었습니다. 또한 사제로서 특별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요조 신부님 피정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을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정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요조 신부님의 손이 제 아버지의 손과 정말 똑같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매우 의미심장한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캐시 호웨가 제 아버지 장례 미사에서 제가 한 강론을 들은 결과로서, 제가 그 피정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메주고리예에서 세계 각지에서 그곳을 찾아온 아주 근사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은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일행중에 펜실베니아 베들레헴에서 온 이사벨라 남(Isabella Nam)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신경남 신부님을 통해 그 젊은이가 바로 평화의 모후 선교회 회장 남 그레고리오 형제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벨라와 함께 요조 신부님 피정을 할 수 있어 참으로 기뻤습니다. 메주고리예에서 돌아 온지 얼마 되지 않은 2007년 5월, 저는 현재의 소임자인 착한 사마리아 성당으로 인사 발령되었습니다. 제가 성당에 부임한 후, 이 성당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교구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로 구성된 메주고리예 기도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자주: 신 신부님이 펜실베니아 비버 카푸친 작은 형제회 분원에서 청원기를 지내는 동안 테리 신부님과 함께 이 성당에서 메주고리예 성 시간을 집전하셨다.)

저는 메주고리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2009년 10월 캐시 호웨가 이끄는 순례단과 함께 다시 그곳을 찾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한국인 가톨릭 신자들과 우리들을 항상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M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신경남 스테파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카푸친 작은 형제회

2008년 7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묵상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육신의 휴식을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나는 회개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너희 마음이 너희 영혼과 몸에 참된 휴식을 주시는 창조주 하느님을 갈망하도록 기도하고 일하여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한사람 한사람을 위해 하느님 대전에서 전구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육신의 휴식을 생각하고 있는 이때에, 나는 회개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무더운 한 여름,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휴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바다로, 산으로 혹은 해외로 휴가를 떠나려고 하는 때입니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늘 해오던 일이라, 그에 익숙한 우리에게 성모님은 색다른 제안을 합니다. 육신의 휴식을 위한 휴가가 아니라 회개하라고 성모님은 우리를 부릅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휴가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휴가를 가지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느님 없는 인간적인 편안함과 휴식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쉼을 누릴 수 있는 회개의 여행을 떠나라고 우

리를 부르십니다.

제가 메주고리예 첫 순례를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묵주기도 15단과 미사, 치유예절 그리고 성시간으로 이어지는 저녁예절에 함께 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가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빠와 엄마 그리고 어린 아들과 딸이 매일 저녁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세 시간 동안 함께 서서 너무도 기쁜 표정으로 예절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회개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오늘 나는, 너희 자신의 마음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이제 들일이 다 끝나, 가장 돌보지 않던 곳까지 깨끗이 치울 시간은 있으면서도, 너희 마음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더 열심히 노락해서 너희 마음 구석구석을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1985년 10월 17일) 지금은 우리의 육신의 휴식보다 우리 육신과 영혼에 참된 휴식을 주시는 하느님을 찾아 믿음과 기도가 바탕이 된 회개의 여행을 떠나야 하는 때입니다.

너희 마음이 너희 영혼과 몸에 참된 휴식을 주시는 창조주 하느님을 갈망하도록 기도하고 일하여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의 『고백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하느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그분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늘 착잡하기만 합니다." 성인의 말씀처럼 우리는 창조주 하느님의 피조물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착잡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는 참된 평화와 휴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은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명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 11,28-31)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런 우리를 향해 당신에게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육신과 영혼을 달래기 위해 하느님 없는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당신께로게 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선교회를 창설한 인도 캘커타의 성녀 마더 데레사를 알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마더 데레사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수녀님과 다른 수녀님들은 하루 종일 거리의 걸인들과 병자들을 돌보느라 애쓰시는데 어디에서 그 힘을 얻습니까?" 마더 데레사는 대답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저희는 성체 앞에서 한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의 고생과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면 그분께서는 참된 휴식과 아울러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기도와 미사 그리고 성체조배를 통해 그분의 얼굴을 뵈옵고자 하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한사람 한사람을 위해 하느님 대전에서 전구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

다: 성모님은 우리의 참된 어머니이십니다. 육신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우리 육신과 영혼의 참된 휴식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모님의 기도 속에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기억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을 찾아 떠나는 회개의 여행길에 오릅시다.

"예수님, 당신은 저희가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저희의 고생과 짐을 덜어주고자 하십니다. 당신의 그 사랑과 연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 요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권고에 따라 당신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성체 앞으로 나아가 앉아 성모님과 함께 당신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성모님,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희의 참된 어머니이시기에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사랑으로 알려주시고, 저희를 이끌어주십니다. 어머니 마리아여,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참된 휴식과 평화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멘" M



성모님을 위해서 이런 고통도 못 견디시겠다는 거예요?

사브리나 꼬비치
남기옥 마르타 역

질문 : 그동안 동료 수도자들은 무엇을 하셨나요?

요조 신부 :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했습니다!… 메주고리예와 치톨룩을 오락가락하면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던 토론들 이후, 저는 완전히 목이 쉬어버려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대변해 줄 사제를 찾았지만, 프란치스꼬회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질문 : 여전히 발현증인들을 만나셨나요? 그 아이들도 경찰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까?

요조 신부 : 도대체 공산당들이 어린 아이들을 어디로 끌고 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부모들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경찰들이 아이들을 끌고 갔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자정까지 기도하고 있

었던 어느 날, 아이들이 도착했을 때, 부모들은 저와 함께 울었습 니다. 비츠카가 물더군요. "엄마, 무슨일이 있으세요?" "무슨 일이라니? 지금 우리가 걱정이 태산 같은 게 보이지 않니?"

"아니 ~ 엄마 성모님을 위해서 이런 고통도 못 견디시겠다는 거예요?" 비츠카의 그 말에

저는 온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무섭고 놀라운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질문 : 공산당들이 마을 전체를 포위하고 있었겠군요?

요조 신부 : 당하지 않은 마을 사람들이 없을 정도였지! 그 당시의 모든 보고서들과 발행되던 신문기사들을 보시면 그들의 박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놀래실겁니다! 벨그레이드, 사라예보, 쟈그레브 신문등… 모두 저를 비난하는 내용들로 가득찼지만, 저는 그런 신문들을 단 한 줄도 읽지 않았습니다!

질문 : 신문에서 메주고리예에 관한 첫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요조 신부 : 모든 신문들은 제가 혁명을 주도하고 당을 전복시키려는 혁명분자로서 정부의 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 그래서 저를 없애버려야 한다고들 했습니다… 사라예보 TV관계자들이 성당 내부를 촬영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들을 성당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어느 신부님께 부탁했지만, 그 말조차 하기 힘들어서 제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질문 : 평소에 신자들의 교리교육에 헌신하셨던 신부님께서 저녁 미사를 금지당하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요조 신부 : 교리교육의 열매는 엄청났습니다. 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똑같은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강하게 공격을 받을수록 더욱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하느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녁미사를 금지당했을 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기다렸던것은 아니였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가보고 싶었습니다!



질문 : 어떤 큰 체험이 있으셨군요?

요조 신부 : 제 안에서는 어떤 힘과 자비하심을 체험하며 용기백배해 있었기에 그들이 저를 파괴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용감하게 증거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의 모든 설교는 회개에 대한 것이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도, 고해성사, 단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실천했습니다. 발현증인들과 어린이들, 어른들 등 모든 사람들이 손에 묵주를 들고 그늘 밑에 앉아서 기도드리는 모습을 당신이 보았다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와 성모님을 위해 모든 것을 봉헌하고 죽음을 불사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우리 본당의 영적인 분위기를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뾰수쉐에서부터 맨발로 메주고리예를 찾아온 정말 순수한 신자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정말 놀라웠습니다.

질문 : 60km 나 떨어져 있는 먼 곳인데요?

요조 신부 : 공산당 정부가 마을 입구 뜨로메디야 치톨룩과 모스타르를 연결하는 곳에서 메주고리예로 향하는 모든 버스들을 막았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은 산을 넘어 먼 길을 돌아갔고 순례자들은 그때부터 걸어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삼일 혹은 그 이상도 개의치 않고 맨발로 걸어 오는 그들의 모습을 당신이 볼 수 있었다면…!

질문 : 새벽 다섯시부터 고해성사를 주시던 신부님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는지요?

요조 신부 : 성모님께서 단식하도록 초대하셨던 날은 수요일이었고 모든 신자들이 이에 응답해서 4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였습니다. 단식 3일 째 되던 날인 금요일, 사람들은 고해성사를 보고싶어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는 단식의 결과며 열매였습니다. 제가 사제들에게 순례자들에게 고해성사 주기를 청하자, 빙코 드라기체비치 신부님, 루가 수衩츠 신부님, 양꼬 부발로 신부님, 그 유명한 "Dosili Majiko draga! 저희 왔습니다, 좋은 어머니. (한국어로는 '온 세상 곳곳에서'라고 번역되어 있음)"라는 성가를 작사작곡하신 스땅코 신부님 등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제들은 용기가 넘쳤고, 매일 고해성사를 주기 위해 줄지어 앉았습니다. 다른 신부님들도 자주 오셔서 고해성사를 주셨지만 이분들은 거의 매일 오셨으니까요! 그 당시 공산치하에 있었던 사제들이나 순례자들은 그분들의 헌신적인 고해성사와 가르침, 사랑과 인내심을 통해 정말 큰 힘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M



발현 초기의 발현목격자들

"만일 나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라살레뜨에서의 성모님 발현

거룩한 동정녀이신 성모님은 죄에 물든 이 세상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 곳에서 발현하고 계신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상상을 초월하는 과학의 발전과 물질만능주의의 힘에 의하여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느님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 질뿐이었다. 사람들은 보고 듣고 즐기는 쾌락에 중독되어 갔으며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의 대열은 나날이 강성해 갔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두움에 물들은 이 세계가 당연히 받아야 할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지도록 버려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유언으로 모든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 마리아는 이 세상이 그렇게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으셨다.

나는 내 아들의 손을 더 이상 잡고
있을 수 없단다!

1846년 9월 19일 성모 칠고 축일 전날 성모님은 남쪽 프랑스 라살레뜨라는 마을 앞에 살고 있는 멜라니 칼바트(15세 소녀)와 막시민 지로드(11세 소년)에게 발현하시어 눈물을 흘리시며 인류의 회심을 또다시 호소하셨다. 두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본 것은 눈이 부시게 광채가 나는 공모양의 물체였다. 그리고 그 물체가 열리면서 몹시 가물어서 바싹 말라 있는 우물가의 돌 위에 앉아 두 팔꿈치를 무릎 위에 세워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있는 귀부



눈물의 마돈나

인의 모습을 보았다. 무섭고 두려웠던 두 어린이 중 멜라니는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얼떨결에 땅에 떨어뜨렸다.

이 때 귀부인은 팔짱을 낀채 몸을 일으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아, 두려워 말고 나에게 가까이 오너라. 나는 너희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단다." 귀부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어린이들은 작은 개울가를 건너 앞으로 갔다. 귀부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웠다. 목걸이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었고, 흰 면사포를 쓴 머리는 가지각색의 장미로 꾸며진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넓고 반듯한 소맷자락은 손끝 까지 드리워졌고, 어깨 위에는 장미술이 달린 망토를 입고 있었다. 순백색의 부인복에 발끝까지 닿은 황금색의 앞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발은 장미로 둘러싸인 신을 신고 있었다. 귀부인의 얼굴과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고 빛이 찬란한지, 어린이들은 눈이 부셔서 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들은 후에 이 세상에서 그 귀부인의 아름다움에 비길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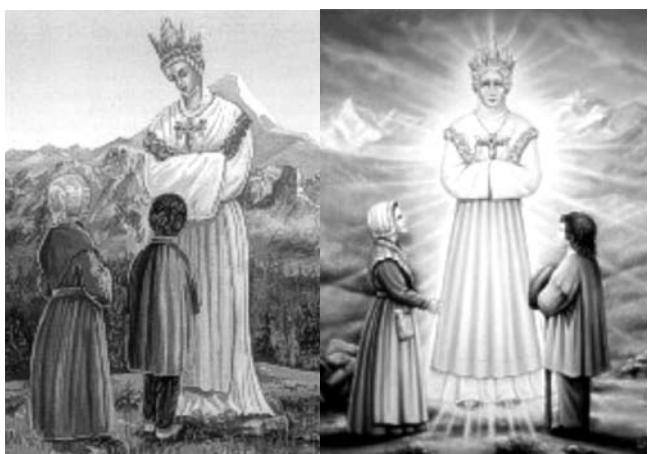
귀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만일 나의 백성이 순명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아들의 손을 더 이상 잡고 있을 수 없단다. 그 손은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이다.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너희를 위해 고통을 받아야 한단 말이니? 나의 아들이 너희를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늘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받는 고통에 대하여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는구나.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 당하는 괴로움의 백분이 일도 기워 갚지는 못할 것이다."

막시민은 귀부인의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으며 멜라니는 조금 알아들었다. 이 두 어린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모님이 현대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의 핵심인 이 모든 말들이 마음 깊이 새겨졌다. 성모님은 말씀을 계속하시며 사람들이 주일을 거룩히 지내지 않음과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이 자기 아들의 팔을 그토록 무겁도록 하는 여러 가지 죄 중에 일부임을 특히 지적하셨다. "만일에 농사가 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희의 잘못이다. 나는 작년에도 감자가 잘되지 않을 것임을 너희에게 경고했지만 너희는 못들은 체했다. 거꾸로 감자 농사가 흉작이었을 때 너희는 저주하고 내 아들의 이름을 헛되이 불렀다. 올해도 감자는 썩어 없어질 것이며 성탄 때까지는 한 톤도 남지 않으리라." 이로써 성모님은 재앙이 세상을 찾아오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

주일 미사에 신자들의 수가 너무 적은 것을 한탄하시며 슬픈 얼굴이 되셨다.

성모님은 만일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감자 농사가 흉작이 될 것을 예언하셨다. 1917년 성모님은 파티마에서 만일 사람들이 회개하여 죄의 보속을 하지 않으면 보다 혹심한 재앙이 오리라고 예언하셨다. 돌이켜 볼 때 라살레뜨의 예언은 앞으로 세상이 겪게 될 재앙을 알리는 전주였던 것 같다. 그 때까지 성모님은 상류 사회의 프랑스 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란 멜라니는 감자라는 단어를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멜라니는 막시민에게 얼굴을 돌려 'Pommes de terre(감자)' 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 보았다. 성모님은 아이들이 프랑스어를 못알아 듣자 그 지방의 방언으로 다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희가 밀

을 가지고 있다 해도 심을 필요가 없다. 벌레들이 모두 먹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찌다가 짹이 나오는 것이 있다 해도 타작하면 먼지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큰 기근이 올 것이며 그러기 전에 일곱 살 미만의 아이들은 떠는 병에 걸려 어른들의 품에 안긴 채 죽어 갈 것이며 사람들은 기근으로 보속을 할 것이다. 호두는 벌레들이 모두 먹어 없앨 것이며 포도는 썩어 없어질 것이다." 성모님은 이번에는 두 어린이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따로 따로 이야기해 주셨다. 막시민에게 하는 말은 멜라니가



알아들을 수 없었고, 멜라니에게 하는 말은 막시민이 알아듣지 못했다. 성모님은 이어 당신이 말한 무서운 재앙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악한 생활을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시며 "만일 사람들이 회개하면 바위와 돌은 밀 더미로 변할 것이며 감자는 저절로 심어질 것이다."라고 덧붙여 말했다. 성모님은 이어 두 어린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아이들아, 기도생활은 잘 하고 있니?"하고 물어 보셨다. 두 어린이는 꾸밈없이 대답했다. "아니요. 열심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 정말 할 수 없으면 주의 기도와 성모송만이라도 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다. 성모님은 주일에 미사 참례하는 신자들의 수가 너무 적은 것을 다시 한 번 한탄하시며 슬픈 얼굴이 되셨다. 작별의 시간이 되자 "자,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고 말씀하신 성모님은 작은 개울을 건너면서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자,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성모님은 풀 위를 걸어 조금 언덕진 산으로 올라가신 후 땅 위에서 약간 뜯 상태로 공중에 띠서 잠시 동안 그대

로 서 계셨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던 얼굴을 땅을 향해 내리신 다음 빛속으로 몸을 감추시었다. 성모님이 사라지신 그 자리에 잠시 동안 빛이 남아 있었다. 막시민과 멜라니는 그 귀부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 귀부인이 혹시 전에 들었던 여자 마술사가 아닌가 생각했다. 그래서 막시민은 성모님이 당신 아들의 손이 무겁다는 말을 했을 때, 아들이 그 귀부인을 때린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다. 멜라니는 나이 탓인지 좀더 생각을 해보더니 "그 귀부인은 위대한 성녀인지도 몰라." 하고 말했다. 막시민은 "그래? 그 귀부인이 위대한 성녀라면 우릴 데려가 달라고 했을텐데." 하고 말했다. 그러자 멜라니는 "오, 귀부인이 지금도 여기 있다면!" 하고 외쳤다 막시민은 아까 보았던 그 빛이 아직도 남아 있나 하고 살펴보았으나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느님께서는 일찌기 없었던 방법으로 벌하실 것이다...

다음은 성모님께서 멜라니와 막시민에게 우리의 마지막 시간에 관한 비밀 예언에 관한 말씀들이다. "만약 나의 백성이 순명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성자의 손을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하느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일을 하도록 6일을 주셨다. 그리고 제7일(주일)은 당신을 위하여 보존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주일을 하느님께 바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성자의 팔을 그토록 내리누르는 것이다. 그들은 나의 성자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사제들은 그들의 세속적인 삶, 경건하지 못하고 불신 양적인 미사봉헌, 그리고 금전, 명예, 즐거움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 백성을 위해서 자비를 간청하는 자가 없구나.

"이탈리아는 군주중의 군주이신 주님의 권세를 흔들어 떨쳐버리려는 야심으로 인해서 처벌받을 것이다. 이탈리아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도처에서 피가 흐를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거나 신성함이 더럽혀질 것이다.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박해를 받으며 잔인하게 죽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할 것이며, 그리고 많은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진실한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주교들도 포함될 것이다.

"1864년에, 루치펠(사탄)이 많은 마귀들과 함께 지옥으로부터 올라와 지상에 풀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조금

씩 조금씩 신앙을 말살할 것이며, 하느님께 봉헌된 자들에게 조차도 그렇게 할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특별한 은총 안에 있지 않으면,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그 악령들의 지배를 받게 될 정도로, 마귀들은 사람들을 눈멀게 할 것이다. 여러 신성한 전례(성체성사 등)가 그 의미를 잃게 될 것이며,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게 될 것이다.

"사악한 책들이 지상에서 만연할 것이며, 그리고 암흑의 영들이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관련된 모든 곳에 전반적인 나태함을 퍼뜨릴 것이다. 그 악령들은 자연에 대한 큰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지상에는 그 악령들을 섬기기 위한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악령들에 의해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운반될 것이다. 비록 사제들조차도 그러할 터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복음적인 선한 영 – 즉,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겸손, 사랑 그리고 열정의 영 –에 의해서 인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때로 죽은 자와 의로운 자들이 소생될 것이다.(주: 마귀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지상에서 하느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았다고 알려진 사람들로 분장하고 무섭게 고통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촉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반되는 것을 전한다고 함).

"참된 신앙이 사라지고, 오류의 빛이 사람들을 비추는 일과 같은 이상한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할 것이다.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 자만적인 지배를 위해서 부를 쌓는 것만을 생각하는 성교회의 군자(추기경)들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나의 성자의 대리자인 교황은 많은 시련을 겪을 것이다. 왜냐하면 잠시동안 성교회는 많은 박해와 어둠의 시간 속에 놓여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성교회는 무서운 분쟁을 목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 대한 참된 신앙은 잊혀질 것이다, 각 개인들은 자기 것만을 생각하고 남들보다 우월하기 바랄 것이다. 그들은 교권은 물론 민권도 폐지할 것이다. 모든 질서와 정의는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가정에 대한 사랑은 없고, 오직, 살인, 증오, 시기, 거짓말, 그리고 불화만이 남을 것이다.

"교황은 많은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나는 끝까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그의 희생을 받을 것이다. 음해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번 시도할 것이며, 그리고 그의 재위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다. 그와 그의 후계자도 하느님의 성교회의 승리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알프스 지방의 라살레뜨 성모님 발현 성지

"모든 세속 정부들은 한가지 동일한 계획을 갖게 될 터 인데, 그것은 물질주의, 무신론, 강신술 그리고 온갖 종류의 악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종교적 원리를 폐지하고 제거하는 것이다.

"거룩한 장소에 대한 신성모독이 있을 것이다. 수도회에서는 교회의 꽃(수도자)들이 부패할 것이며, 악마가 마치 모든 마음들의 왕(하느님)인 것처럼 오류를 퍼뜨릴 것이다. 수도회의 책임을 맡은 자들은 그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악마가 죄인들을 수도회에 끌어 넣기 위해서 그의 온갖 사악한 계략을 부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질서와 육체적 쾌락을 사랑하는 풍조가 전세계에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큰 전쟁이 뒤따를 것이다. 당분간 하느님께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잊혀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 안에서 조차 서로 죽이고, 대학살을 할 것이다.

"하느님의 분노의 칼의 일격에, 산과 모든 자연은 공포로 떨 것이다. 그 이유는 인류의 죄와 무질서가 하늘을 꿰뚫었기 때문이다. 파리는 불타고, 마르세이유는 물 속에 잠길 것이다. 여러 도시들이 지진에 의해서 흔들리고 삼켜질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잊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살인 이외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전쟁과 신성모독의 소리 이외에는 아무 것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인들은 큰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들의 기도, 보속, 그리고 눈물이 하늘로 오를 것이다. 하느님의 모든 사람들은 용서와 자비를 애걸할 것이며, 그리고 나의 도움과 중재를 간청할 것이다. 그러면, 정의와 자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천사들에게 당신의 모든 적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실 것이다... 복음은 세상 도처에서 설교될 것이다. 인류는 신앙에 있어 큰 발전을 이루할 것이다. 그 이

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 사이에 일치가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하느님을 경외하며 살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 평화는 짧게 지속될 것이다. 25년간의 풍부한 수확이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죄가 이 지상에서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잊게 할 것이다.

"반그리스도의 전임자가, 여러 국가들로부터 모인 그의 군대들과 함께,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진실하신 그리스도와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그는 많은 피를 흘리게 할 것이며, 그 자신이 신(하느님)으로 받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대한 경배를 없애려고 할 것이다.

"세상은 (광범위하게 퍼질 전염병과 기근에다가) 온갖 종류의 재난을 겪게 될 것이다. 최후의 전쟁 때까지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될 것이다. 최후의 전쟁은 세상의 유능한 지배자들인 반그리스도의 열왕에 의해서 치뤄질 터 인데, 그들 모두는 한가지 동일한 계획을 가질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에는 일종의 거짓 평화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즐기는 것외에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들은 그들 자신을 온갖 종류의 죄에 넘길 것이다. 그러나 성교회의 자녀들, 나의 믿음의 자녀들, 나를 충실히 따르는 자들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온갖 덕 안에서 자랄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겸손한 영혼들은 복된 자들이다! 나는 때가 찰 때까지 그들 편에서 싸울 것이다.

"자연은 인간 때문에 복수를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자연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지구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있는 일에 대해서 공포로 떨고 있다. 지구를 두려워하여라, 그리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하며, 안으로,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여라,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당신의 적에게 넘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소(聖所)들이 타락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많은 수도회들이 더 이상 하느님의 집이 아니며, 단지 지옥의 파괴자와 그의 동류(同流)들의 목초지일 뿐이다. 반그리스도가 히브리 출신의 수녀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이때가 될 것이다. 그녀는 거짓 처녀로서 불순(음란)의 군주인 늙은 뱀과 교통할 것이다. 반그리스도의 아비는 B이다. 반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그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욕설을 내뱉을 것이며, 그는 이빨을 지닐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악마의 화신(化身)이다. 그는 무서운 괴성을 지를 것

이며, 기적을 행할 것이고, 오직 불순만을 먹고 자랄 것이다. 그는 형제들을 가질 터인데, 그 형제들을 비록 반그리스도처럼 악마들의 화신은 아닐지라도, 악의 자식들이다. 12세 때에, 그들은 그들이 해낸 큰 승리들로 인해서 세상의 이목을 그들에게로 이끌 것이다. 그들은 곧 지옥에서 올라온 군단들에 의해서 도움받는 군대들을 각각 이끌 것이다.

"계절은 뒤바뀔 것이며, 지구는 오로지 나쁜 열매만을 맺을 것이다. 별들은 그들의 정해진 궤도를 이탈할 것이며, 달은 희미하게 붉은 빛만을 비출 것이다. 물과 불은 지구의 세계적 이변들을 만들어낼 것이며, 무서운 지진들이 산, 도시,... 등을 집어삼킬 것이다.

로마는 신앙을 잃을 것이며, 반그리스도의 자리가 될 것이다.

"공중의 마귀들이 반그리스도와 함께 지상과 대기 속에서 큰 기적을 행할 것이다. 사람들은 점점 더 악의 길로 빠질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들과 선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복음이 도처에서 선포될 것이며,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세상에 절박한 호소를 한다. 나는 천국을 다스리시며, 살아 계신 하느님의 진실한 제자들을 부른다. 나는 사람을 만드셨으며, 사람들의 유일하고 참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자들을 부른다. 나는 나의 자녀들, 진실한 신자들, 나의 성자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을 나에게 맡긴 자들, 나의 팔에 안고 옮길 수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나의 영을 먹고 살아왔던 자들을 부른다. 끝으로 나는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을 부른다. 그들은 세상과 그들 자신을 천히 여기고, 빙곤과 겸손 속에서, 비웃음과 침묵 속에서, 기도와 금욕, 순결 속에서 하느님과 함께, 시련 속에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들이다. 이제는 그들이 드러나야 하고, 세상을 빛으로 채워야 한다. 가거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소중한 자녀들임을 밝혀라. 만약 너희들의



발현 목격자 막시니와 멜라니

믿음이 이 불행한 시대에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면, 나는 너희들 편에 그리고 너희들 안에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예를 갈망하는 자가 되도록 온갖 열정을 다 바치는 자가 되거라. 싸워라, 빛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눈이 열린 소수의 영혼들이다. 그 이유는 지금은 모든 시대 중의 시대이며, 모든 마지막 중의 마지막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빛을 잃을 것이며, 세상은 혼란 속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 하느님의 성령으로 가득찬 에녹과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능력으로 설교할 것이며, 선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성령의 힘을 통해서 앞으로의 위대한 전진을 이룩할 것이며, 반그리스도의 악마적인 과실들을 책망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세상에는 피비린내 나는 여러 전쟁과 기근, 여러 역병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무서운 우박이 섞인 비가 내릴 것이다. 도시를 뒤흔들 천둥이 있을 것이며, 지진이 일어나서 여러 국가들을 집어삼킬 것이다. 공중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사람들은 죽게 해 달라고 벽에다 그들의 머리를 부딪칠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는 죽음이 그들을 괴롭힐 것이다. 피가 도처에서 흐를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 시련의 기간을 줄여 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의인들의 피, 눈물 그리고 기도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노여움을 푸실 것이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게 될 것이다. 이교도의 로마는 사라질 것이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세 도시가 소멸될 것이다. 온 우주는 공포로 떨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파멸의 상태에 놓이게 될 터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 가운데 살아계시는 진실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태양은 어두워질 것이며, 오직 신앙만이 남을 것이다.

"지금은 그때이다. 심연(지옥)이 열리고 있다. 여기에 암흑의 왕중의 왕이 있다. 여기에 스스로 세상의 구원자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부르는 짐승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있다. 그는 하늘로 가기 위하여 공중으로 거만하게 오를 것이다. 그는 성 미카엘 대천사의 입김에 의해서 질식될 것이다. 그는 떨어질 것이며, 지구는 3일간 지속되는 이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때 지구는 이글거리는 그 창자를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 짐승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끝없이 깊은 지옥의 심연 속으로 영원히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물과 불이 지구를 깨끗이 정화하고, 인간의 사랑이던 모든 업적을 소멸시켜서, 모든 것은 새롭게 될 것이다.

"하느님은 섬김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이 메시지를 나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다오,"라고 성모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성모님은 로마쪽을 바라보시며 매우 슬퍼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멜라니는, "성모님께서는 발현 중 내내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라살레뜨에서의 성모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나 1846년 아래 대홍년으로 유럽에서만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고 1870년에는 보불(普佛)전쟁이 발발하자 회개하는 순례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발현은 발현 후 5년이 되는 1851년 9월 19일에 성교회로부터 인가되었다.

▣ 라살레뜨 성모의 두 가지 비밀 ▣

발현하신 지 5년이 지난 후 교황 비오 9세는 성모님이 두 어린이에게 따로따로 말씀하신 비밀을 알고자 했다. 어린이들은 자기들의 편지가 봉인된 채 직접 교황에게 전달될 것을 조건으로 비밀을 써 보내겠다고 말했다. 막시민은 간단하게 썼기 때문에 금방 다 써 버렸다. 멜라니는 좀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쓰는 도중 멜라니는 '무류권'이 무슨 뜻이며 '그리스도의 반대자'의 철자는 어떻게 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 두 통의 편지는 그르노를 교구의 루셀로 신부와 계랭 신부에 의해 교황청으로 전달되었다. 1851년 7월 15일 이 두 신부는 교황 비오 9세를 알현했다. 교황은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손을 내밀어 두 신부로 하여금 자기의 반지에 입맞추게 했다. 교황은 두 신부의 손에서 봉인된 편지를 받아 연 후 막시민의 편지를 뜯었다. 읽으면서 교황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어린이의 천진 난만함 그대로군" 하고 말했다. 이



를 들은 두 신부는 '성모님이 막시민에게 자비와 위로의 메시지를 위임하셨구나.'하고 생각했다. 교황 비오 9세는 좀더 환한 곳에서 읽기 위해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뒷문을 열었다. 그는 멜라니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웃지 않았다. 이번의 비밀은 좀더 길고 심각한 것 같았다. 읽는 동안 그의 입술은 꽉 다물어졌고 볼은 가볍게 경련했다. "재앙이 프랑스를 위협하는구나. 그러나 죄가 있다면 왜 프랑스뿐이랴?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전 유럽이 죄를 짓고 있으며 별을 받아도 당연하지 않으랴? 나는 공공연한 불경(口口)보다는 무관심과 인간 지상의 사상이 더 두렵다. 교회가 호전적(口口口)이라 불리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고 말한 후 "호전적인 교회의 지도자가 여기 서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런지 몇 년 후 교황 비오 9세는 "여러분은 라살레뜨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보속을 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하리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상의 일이 라살레뜨의 비밀에 관해 알려진 전부이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를 위해서였지만 특별히 더 이상 하느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강조했다. 1946년은 라살레뜨의 성모 발현 1백 주년이었다. (금년까지 계산해서 적을 것) M

(참고 사이트: [Spiritdaily.com/mariasarang.net/megapass.net/](http://Spiritedaily.com/mariasarang.net/megapass.net/)
pmleeagnes.com)

하느님께서 주신 고귀한 보물 묵주기도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이 생애를 묵상하는 관상기도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묵주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7년 동안 발현하고 계시는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이 시대가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편집자註)

루도비코 성인은 묵주기도를 "생명과 죽음과 영원에 있어서 예수 마리아의 신비스런 장미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또 그는 당신의 묵주기도의 장미꽃은 결코 시들거나 죽지 않을 것이며 지금부터 수천년이 지나도 바로 오늘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묵주기도를 조금밖에 중요치 않은 것으로 여기는 무식한 사람이나 학자들을 경고합니다.

"묵주기도는 하느님께서 감도해 주신 무한히 고귀한 보물입니다,"



흰 장미꽃

- 사제들에게 -

하느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모든 나라에 복음을 가르치는, 자극히 존귀한 분의 사랑하올 봉사자들인 나의 동료 사제들이 여러분께 내가 고이 간직하기를 좋아하는 하얀 장미 한송이처럼 이 작은 책을 드립니다. 이 책에 포함된 진실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매우 단순하고 솔직한

태도로 대할 것입니다. 이 하얀 장미송이를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셔서 거룩한 묵주기도를 스스로 실천하여 그 열매를 맛보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기도가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 머물게 되어 묵주기도를 전파하고 이 거룩한 신심의 뛰어남을 가르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을 회개시키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무지한 사람들 혹은 몇몇 훌륭하고도 쟁쟁한 학자들에게까지도, 묵주기도의 어떤 조그마한 중요성만이라도 주의깊게 숙고하기를 간청합니다. 아주 미미한 것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묵주기도는 사실 하느님께 영감 받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고귀한 보배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마음이 굳어버린 죄인들과 완고한 이단자들의 회개를 위해 이 묵주기도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묵주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은총을, 그리고 후세에는 영광을 주십니다. 성인들은 이 점을 충실히 이야기하여 왔으며 교황님들은 이를 인정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비결을 사제들과 영혼의 지도자들에게 계시해주셨을 때, 그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비결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사제들이 이런 비결을 실제로 이해한다면 매일 묵주기도를 권장할 것입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는 당신의 넘치는 은총을 그의 영혼에 부어주시어 그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의 언변은 단순하지만 1개월 안에 수 년 간 일해온 다른 선교사들보다도 더 많은 효과를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올 동료 사제들이여, 우리는 이 신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으로 충분치 못하고 우리 자신부터 스스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묵

주기도의 중요성을 확고히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묵주기도를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권고를 실천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실행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실천하신 바를 전파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대로 해야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한 바오로 사도를 닮아야 합니다. 거룩한 묵주기도를 전파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바오로 사도가 전파한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분을 실질적이고도 진실로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의 혼합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마리아의 생애, 곧 수난, 죽음, 영광의 신비에 대한 성스러운 신적 종합이며 요약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묵주기도를 전파함으로써 얻은 효과를 체험으로 알게 해주시고, 묵주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회개를 가져왔는지를 내 눈으로 보게 해주신 하느님의 크신 은총에 대해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날 사제들이 습관적인 행위에 빠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아름다운 신심을 전파하기 위해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즐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이 모든 것 대신에 거룩한 묵주기도에 관한 몇 가지 있었던 일들과 입증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 내가 쓴 이 작은 요약서보다 더 적합할 것입니다.



붉은 장미꽃

– 죄인들에게 –

죄중에 있는 모든 불쌍한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보다 더 큰 죄인인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장미-주님께서 당신 고귀한 성혈을 떨어뜨려 진홍빛같이 된 이 장미-한 송이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미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진정한 향기를 발산함으로써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되면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처해있는 위험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신자들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부르

짓을 것입니다. "장미꽃이 지기전에 장미화관을 쓰자"(지혜 2:8)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성스러운 묵주로 나를 꾸미자."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외침은 얼마나 다릅니까! 그들의 장미는 육신의 향락이며 세속적 영예와 덧없이 지나가는 시들고 썩어 없어질 부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장미는 우리가 정성껏 바치는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이며 그에 덧붙여 속죄와 보속의 행위를 하는 것이니 결코 시들지도 없어지지도 않으며 지금부터 수천 년간 더 할 나위없이 훌륭하고 싱싱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충실히 묵주기도를 바친다면, 당신들의 죄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결코 변치않을 영광의 관을 받게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파문의 위기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옥에 한쪽 발을 들여놓았다 할지라도, 악마의 힘을 빌린 마술사들처럼 악령에게 자기영혼을 팔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악령처럼 완고한 이단자라 할지라도 조금 일찍, 혹은 조금 늦게라도 여러분들은 회개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영혼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을 주의깊게 잘 생각하여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통회와 용서를 얻고, 진리를 깨우치기 위한 목적으로 죽을 때까지 매일 정성껏 성스러운 묵주기도를 바친다면 말입니다. 이 책에는 성스러운 묵주기도의 힘을 통해 회개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으므로 이를 잘 읽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다음호에 계속) M

(출처 : 아베 마리아 출판사)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발 행 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편집인 : 남 그레고리

지 도 신 부 : 박창득 몬시뇰(뉴왁대교구)

: 신경남 신부(카푸친 작은형제회)

자 문 위 원 단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선교학 박사)

한 국 지 부 장 : 박연자

후 원 회 장 : 권수정

웹 관 리 자 : 제임스 윤

편 집 위 원 : 최성득, 최 레지나, 송시원, 남미자, 이규현

인 쇄 : 미주가톨릭출판사, 영인문화 인쇄사, 동방인쇄

제 13차 메주고리예의 사제들을 위한 국제 세미나



우리는
기독교
말씀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사제들을 위한 제 13차 국제 세미나가 2008년 6월 30일부터 7월 5일 까지 메주고리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였고,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원인 즈제즈덴 리닉 박사 신부가 연사로 초대되었다. 전세계에서 참석한 233명 사제들과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콜럼비아, 미국, 아일랜드, 벨기에,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세루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우크라이나와 리투아니아에서온 30여명의 동방교회의 사제들이 함께했다. 사제들은 매일 라틴어 성무일도와 성시간, 강론을 들었고, 정오 휴식시간에는, 침묵속에서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할 수 있었으며, 야고보 본당의 저녁전례에 참석했다. 세미나동안에, 사제들은 함께 발현언덕에 올라가서 묵주기도를 바쳤으며, 그들은 또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함께 바치면서 십자가산에도 올라갔고, 그후에는 고백성사를 바칠 기회가 있었다.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상 앞에서 성무일도를 바치고, 이 국제사제들의 만남을 창시하신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님의 묘지를 참배하였다. 세미나는 크로아티아와 9 개국의 언어로 동시통역 되었다. 미르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오스트리아와 남타이롤을 위해서 이번 세미나의 강론들을 생방송하였다.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많은 평화센터와 봉사단체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제들이 이번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행경비를 후원했으며 메주고리예 본당과 신자들은 숙소를 제공했다. ■



나를 온전히 내 맡기며...

우리가 참으로 온전히 하느님께 속해 있다면, 그분께 자신을 내맡겨야 하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하여는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느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누가 오겠다는 것을 거절해야 했던 때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 천명을 돌보아야 하는 우리에게 음식이 떨어진 때도 없었고, 침대나 다른 것들이 모자라던 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어서 되돌려 보내야 했던 사람은 5만 3천명의 나환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월급도, 정기적인 수입도, 그 밖의 다른 어떤 수입도 없었지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느님의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돋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도와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느님은 우리를 돋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성서에서 수차 약속하셨고, 그분은 언제나 당신 약속에 충실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신뢰심을 지니도록 복돋아 주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것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을 내맡기라고 당부합니다.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모든 것을 함께 주시는 하느님께서 어찌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성 아우구스티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수녀

"우리를 대신하여 악을 짊어지기로 하신 하느님이 우리에게 좋을 것을 주시리라는 사실을, 어찌 당신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비추어서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새들과 꽃들까지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해 외쳐대는 까마귀 새끼들을 먹이시고, 씨앗을 뿌리거나 곡식을 거두어들이거나 저장도 하지 않는 새들을 먹이시며, 들의 꽃들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느님이실진대 하물며 당신의 모습을 닮게 만드시고, 당신의 양자 양녀로 삼으신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더 잘 보살피시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자녀답게 살면서 그분 계명을 따르며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업체가 되지 않고 그저 사랑의 일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하느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밖의 모든 것을 더불어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일상의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어, 우리가 좀 더 충만하게 살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은 인간 생활의 실패와 십자가의 고통을 겸손하고도 인내롭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더 잘 닮게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도움을 꼭 믿고, 인내로이 그리고 용기있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소서." **M**

<샘에서 생기를… 에서 발췌>

제 1 치 예수님, 당신께서는 사형선고를 받으십니다



저자 :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O.F.M
옮긴 이 : 이미림

예수님께서 군인들과 빌라도 사이에 서 계신다. 그 아래 격분한 군중이 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기를 원한다. 제사장들의 영향을 받아 화가 난 사람들은 주먹과 막대기를 쳐들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고 있다. 군인들과 사람들은 빌라도의 평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두려워하며 그분을 구하려는 시도를 해보고는 곧 손을 씻는다. 그리고 그분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넘겨준다. 올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상처 입은 자존심과 허영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외침으로 변하고 있다. 중오에 찬 군중들이 쳐들고 있는 주먹과 막대기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매질로 상처투성이가 된 몸이지만 여전히 품위 있고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또한 당신은 단죄하는 이들에게 온유하고 슬픈 눈길을 보내시며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깨뚫어보신다. 그분의 부은 얼굴에서 은혜를 모르는 전 인류에 대한 용서가 느껴진다. 예수님께 유일한 위로는 어머니께서 거기에 계신다는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신중하게 처신하고 계시지만, 참으로 온전히 거기에 계신다. 두 분의 마음은 하나의 고통으로 결합되어 있다.

성경 묵상 : "그런데도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 나무를 열매째 베어 버리자. 그를 산 이들의 땅에서 없애 버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예레 11: 19)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님, 당신은 판단 받으셨지만, 결코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고 한 말은 사실입니다. 그 순간은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께 무서운 순간입니다. 올바르고 결백하시건만 그 답례로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당하십니다. 당신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은 상처를 입고서 고통과 아픔을 나누며 한 마음으로 결합됩니다. 당신은 평생토록 죄 없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따돌림 당한 사람들을 보호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돌림 당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되셨을 뿐 아니라 범법자 취급까지

어머니께 청하오니 . . .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예수님, 저희가 당신께 한 일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올바른 사람이 판단 받을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 때마다,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있으니 용서해주십시오.

예수님, 이제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쳐들었던 제 주먹도, 막대기도 내려놓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죄 없는 사람들과 올바르게 사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병자들을 따뜻하게 보호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모님의 메시지 :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밤에는 특별히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전능하신 분께서 오늘도 여전히 너희의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여라. 그러므로 고통을 당할 때, 너희의 고통을 하느님께 희생으로 바쳐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서 고맙다."(1984년 3월 29일)

- 성모 마리아님, 감사드리며 찬송하나이다.
- 성모님의 고통으로 세상의 구원을 도우셨나이다.

성모 마리아님, 저는 당신과 함께 여기 있고 싶습니다.
당신은 홀로 계시고, 세상은 당신 아드님을 파괴시키려고

힘을 합쳤습니다. 당신은 비록 아무 힘도 없으시지만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이셨기에 그처럼 가장 힘든 순간에 아드님 곁에 계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습니다. 마리아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미워하고 배척하고 단죄하고 죽음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혼자 계시지 않도록 어머니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랑과 동정심을 품고 기꺼이 도울 마음으로 당신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당신 아드님과 당신께서 그들을 위해 고통을 당하실 때 저도 그들 곁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마리아님, 비탄에 잠기신 어머니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님의 고통을 나누시며

주님의 쓰디쓴 모든 고뇌를 참으시니

이제 마침내 그 칼에 찔리셨도다.

성모님, 제 마음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세주의

모든 상처를 깊이 새겨주소서. □

(제 2처로 항하며…)

2008년 8월 2일 미리야나에게 주신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여기, 너희 가운데 옴으로써 하느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길이 열리고 있다.

자신이 약하고, 혼자이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말아라.

믿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구원의 언덕으로 오르거라.

너희가 바치는 기도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강력한 행위인 미사가
너희 영성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여라.

나의 자녀들아, 믿고 사랑하여라.

내 아들이 선택하고 부른 사람들이 너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나는 어머니로서 특별히 너희와 그들을 축복한다. 고맙다."





예수님, 모든 악에서 저를 구하소서

예수님, 당신께서 죄로부터 해방시켜주시니 저는 당신을 흠송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내적인 자유를 주시니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죄와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시니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 마리아께서 맨 처음으로 당신 은총의 힘을 체험하시고, 태어나시기 전부터 모든 죄의 물듦에서 보호되셨으니 저는 마리아와 함께 당신을 흠송합니다. 당신께서 마리아 안에서 저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라시고 (...) 저를 인도하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리아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를 모두 내 망토로 감싸주고,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고 싶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모든 과거를, 너희 마음에 쌓여 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께 맡기도록 간청한다. 나는 너희 각자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으면 아무도 행복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므로 기도하여라. 그 러면 기도 안에서, 새로운 기쁨의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 너희는 나와 내 아들이 너희 각자에게 바라는 바를 기쁘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축복한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87년 2월 25일)

아버지, 성령 안에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저를 제 과거의 모든 죄들로부터 구원해주시도록 간청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당신께 맡겨 드립니다. 이 순간 저를 구원하시어 제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 당신께서는 (...)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주십시오. 저를 모든 악에서 구해주시어 오직 당신만이 주시는 자유를 느끼게 해주세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모든 악습들을 예수님께 봉헌한다.)

예수님, (...) 단 한 말씀으로 그를 쫓아내셨으니 찬미와 찬양을 받으소서. (...) (마태 4:1-11) 유혹에 자신을 맡겼던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이름으로 사탄과 그의 행위를 끊어버리고, 하느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 주 하느님이신 예수님, 저는 당신을 섭기고, 오직 당신만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침묵 중에 이 기도를 반복하며 묵상한다.)

예수님 (...) 저는 당신을 흠송하나이다. 당신과 함께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뿐이십니다. 또한 마리아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초대하시고 경고를 주시니 찬미와 찬양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요즈음 너희는, 이 본당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다정하심을 체험했다. 사탄이 너희 각자에게서 기쁨을 잊어 가려고 더욱더 맹렬하게

활동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너희는 그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고 너희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1985년 1월 24일)

마리아여, 저는 (...) 당신과 함께 악과 죄 그리고 사탄과 그의 악한 행실에 대해 승리하겠습니다. (...) 당신께서 저에게 당신의 망토를 펼치셨기에 사탄은 저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고, 당신께서는 저에게 경고를 주시며,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등을 돌릴 것입니다.

- 예수님, 저는 마리아와 함께 당신을 흡승하고, 악과의 싸움에서 당신과 협력하기로 결심합니다!

(침묵 중에 이 기도를 반복하며 묵상한다.)

승리자이신 예수님, (...) 모든 죄를 임태케 하는 사탄에 대해 승리하신 당신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 (1베드 5:8-9) 예수님, 사탄의 손에서 세상을 구해주소서. (...) 온 세상이 예수님 당신만을 섬기게 해주소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 마약, 알코올, 불의, 성적 문란, 절도, 살인, 폭력의 길로 들어선 모든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밀교에 몸담고 있는 이들, 당신 성체성사의 사랑을 더럽히고 신성 모독하는 이들 그리고 검은 미사에 참여하는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 예수님,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세상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해주소서!

(침묵 중에 이 기도를 반복하며 묵상한다.)

예수님, (...) 그들은 당신을 살해했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결코 악에 의해 가리워지지 않으셨고, (...)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서조차도 용서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모든 마음들과 영혼들의 주인이시니 (...) 저희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잘못을 범한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일하시는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시편저자와 함께 노래하게 하소서. (시편 98:1-9을 묵상하고, 영혼으로 찬미를 드린다.)

예수님, 당신께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성 가정에서 사셨으니 저는 당신을 흡승하고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성 가정에는 (...) 하느님의 평화가 넘쳐흘렀습니다. (...) 모든 가정의 온갖 고난을 당신 앞에 봉헌합니다. (...) 저희의 가

정이 바오로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갈라 5:13-18)

- 예수님, 저희를 유혹으로 이끄는 모든 것으로부터 저희 가정들을 해방시켜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저희가 서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특별히 시련속에 있는 가정들을 봉헌한다.)

예수님, (...) 저는 그리스도 교회들 사이의 모든 분열, 거짓된 생각에 대한 예속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망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당신의 계명을 잊은 채 분열의 길을 걸었던 모든 순간들을 이제 저는 당신께 봉헌합니다. (...) 당신 사도 바오로의 말씀으로 사랑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와 자유의 성령이 태어나시게 하소서. (1고린 12: 4-7)

(본당 공동체, 모든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을 주님께 봉헌한다.)

예수님, (...) 당신께서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 술, 컴퓨터 게임, 도박 그리고 성적 문란함에 중독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 그들의 부모, 교회 그리고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 그들을 구해주시고, 그들에게 악한 행동을 멈출 수 있는 힘을 주소서. (...) 중독된 사람들을 돋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중독자들과 함께 하는 그들의 활동이 성공을 거두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과 영혼을 구원자이신 당신께 자유롭게 봉헌하게 하소서. (침묵 중에 이와 같은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봉헌한다.)

축복 :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구속자요 구원자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모후이신 마리아와 함께 당신께 간청합니다. 저희 모두와 가정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을 축복해주소서. 모든 악과 죄의 속박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사람들이 타인을 위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에게 당신 자유의 선물을 주시어 저희가 성령 안에서 당신의 선심과 사랑을 증거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당신께서는 세세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M**

('성 시간' 책은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 610-366-9612/한국: 02-2281-3236)



사탄은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주의 여왕 (5)

저자 : 잔 코넬 (Jan Connell)

신경남 스테파노 옮김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카푸친 작은 형제회)

질문 :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리야나 : 그들이 스스로 택한 결과로 상상을 초월한 무서운 별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미리야나 : 네, 그래서 성모님께서 우시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당신 모든 자녀에 대해 품고 계신 그 사랑을 깨닫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간청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질문 :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고하겠습니까?

미리야나 : 우리가 하느님께 의탁하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화해할 때 찾아오는 깊은 평화와 행복을 받아들이십시오. 성모님께서는 이 땅의 누구도 이런 평화와 행복에서 제외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질문 :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미리야나 :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미사 중에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모님 메시지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 간다면 지금 바로, 많은 은총을 받게 됩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통해 보여 주라고 부탁하십시오.

질문 :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미리야나 : 네, 그러나 집집마다 찾아가기보다는 조심스럽게 하세요. 정말 아끼는 몇몇 친구가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러나 서서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조금씩 밖에 이해할 수 없으니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모님의 메시지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모범적인 삶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질문 : 당신이 성모님께 직접 배운 실제적인 조언을 좀 해주겠습니까?

미리야나 : 네, 세상에서 보는 모든 좋은 것 안에서 하느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매일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도록 노력하십시오.

질문 : 레오 13세 교황은 환시를 통해 사탄에게 교회를 시험하도록, 한 세기가 주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미리야나 : 네,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이 밝혀질 때까지 사탄이 다스릴 것입니다.

질문 : 메주고리예의 비밀들이 실현될 때, 사탄의 권세가 꺾이게 됩니까?

미리야나 : 네.

질문 : 어떻게 말입니까?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발불일 데가 없습니다

미리야나 : 그것은 비밀의 한 부분입니다.

질문 : 이번 세기와 관련해, 성모님께서 하느님과 악마 사이의 대화를 당신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 대화에서 악마가 주장하기를, 사람들은 만사가 잘 될 때만 하느님을 믿는다고, 나쁜 일들이 생기는 순간 하느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비난하면서 마치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한다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사탄이 집중적으로 힘을 발휘하도록 한 세기를 허락하셨는데, 사탄이 바로 금세기를 택했다고 말입니다.

미리야나 : 네, 오늘날 우리는 도처에서 사탄의 힘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혼, 결혼 파경, 낙태,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등 가족 안의 원한과 냉소, 이 모든 것이 사탄의 짓이라고 하셨습니다.

질문 : 그런 모든 것의 원인이 사탄이란 말입니까?

미리야나 : 물론입니다. 그런 일들은 죄 때문에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사람이 죄를 지어야 합니다. 사탄은 늘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어디든지 누군가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사탄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 현대사회는 많은 사람이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미리야나 : 물론 사탄은 존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탄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창조물 가운데 가장 사악한 세력입니다. 사탄과 마주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질문 : 스베토잘 신부님이 쓰신 책에서, 당신이 방에서 성모님을 기다리고 있던 당시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직 성호를 긋지 않고 있을 때, 갑자기 밝은 빛이 번쩍이며 악마가 나타났다… 무섭고 끔찍했는데, 나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점점 약해지는 것을 깨달았고,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웃으며 여전히 거기 서있었다.

악마는 내게 어떤 이상한 힘을 주어 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무척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등을 말했다. 또, 나에게 성모님이나 신앙

따위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성모 마리아는 너에게 고통과 어려움밖에 준 게 없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내가 무엇을 원하든 모든 아름다운 것을 내게 주겠다고 했다. 그때 내 안에서, 어떤 의식이었는지 영혼 속에서 무언가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라고 내게 말했다. 그러자 나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굉장히 무서웠다. 그때 악마는 사라졌고 성모님께서 나타나셨다. 성모님께서 나타나시자 나는 다시 힘이 생겼다. 마치 성모님께서 내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나는 다시 정상적으로 느꼈다. 성모님께서 '그것은 시련이었다. 그러나 다시는 네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미리야나 : 그 체험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질문 :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나요?

미리야나 : 사탄은 언제나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언제나 애씁니다. 사탄은 악 자체이지만 언제나 위장을 하고 찾아옵니다. 대개 혼란이나 무질서 또는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탄은 특히 가족 관계를 파괴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는 기억을 왜곡시킬 수 있고, 우리가 실재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 속에서 살며 하느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서로 화해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탄은 힘을 잃고 맙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발불일 데가 없습니다.

질문 :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의 예를 들 수 있습니까?

미리야나 : 네, 때때로 기도하려고 하거나 미사에 가려고 할 때, 혹은 자선헌금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무언가 당신을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막 성당에 가려 할 때 전화벨이 울린다거나, 뭔가 다른 데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무엇에 돈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입니다. M

가정 안에서의 메시지 실천



마크 미라발레 교수

미국 스투벤빌 프란치스꼬 대학교 신학과 마리아론 박사

(미국 스투트벤빌 프란치스꼬 대학에서 마리아론과 신학을 가르치는 마크 미라발레 교수는 결혼한 종신부제로서 여덟 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다. 그는 로마에서 박사학위를 준비하던 중, 발현 초기 메주고리예 진실을 조사를 위하여 그곳을 다녀갔다. 그는 메주고리예를 처음 알게된 인연과 열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1984년 9월 로마의 교황청 안젤리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메주고리예에 관한 두 권의 책이 처음으로 출판되었는데, 하나는 르네 로郎탕 신부님과 류데빗 루부치치 신부님의 공동저서였고, 다른 하나는 로버트 패리시 신부님의 책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 책들을 읽으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열정으로 불타올랐고, 여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는 두 명의 아이들과 함께 나흘 동안 기도하고 단식했습니다. 이것은 성모님의 발현이 아니라도 우리 가정의 성화를 위해 매우 유익한 기도이며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발현이 사실이라면 두 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메주고리예와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1984년 12월 7일, 처음으로 메주고리예에 도착하여 난방도 되지 않는 본당 사제관에서 다른 열 명의 순례자들과 함께 자고, 다음날은 다른 곳에서 잤습니다. 처음으로 십자가 산을 오르면서 '평신도들의 성화'를 주제로 한 박사논문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평신도들의 성화에 대한 체계는 성모 신심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논문의 주제를 메주고리예의 메시지로 결정했습니다. 로마로 돌아와 첫 부분을 제출했는데 사적계시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교수들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1985년 5월 31일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와 루르드와 파티마'를 바탕으로 한 메주고리예의 메시지에 대한 논문이 합격했습니다.

당시 저는 메주고리예에 대해서 평생 논하면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예수회 회원 한 분이 유명한 대학 교수의 자격으로 전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총고 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스투벤빌 프란치스꼬 대학교에서 신학과 마리아론을 강의한 것이 21년 째입니다. 대학교에서는 가정을 위한 성모님의 메시지에 대한 강의를 했으며, 학생들이나 부모와 그 자녀들,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점차적으로 메시지를 실천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또한 미국 전역에서 메

주고리예 성모님의 발현에 대한 강의를 해왔고, 가톨릭 백과사전에 원고를 썼습니다. 또 '메주고리예 입문' 이란 소책자와 '가정과 메주고리예'라는 책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는 "메주고리예의 메시지를 실천하려고 하지만 하루면 끝입니다! 기도와 단식도 해보고 – 처음에는 전혀 하지 않았음–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해보았지만, 하루 일과를 마칠때 쯤이면 우리 가정과 메주고리예는 상상할 수 없는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포기했어요!" 라고 말하는 많은 가정들을 위해서입니다."

질문 : 실천할 것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메주고리예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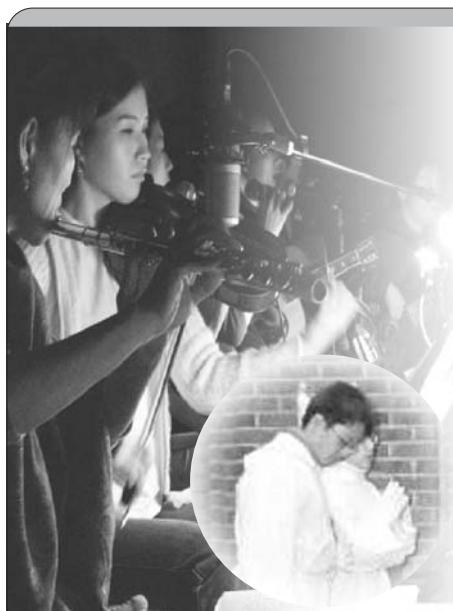
마크 교수 :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예에서 일상 삶속에서 메시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그들의 첫 번째 지향은 자녀들의 성소였습니다. 성모님은 단계적으로 메시지를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이 되면 고기와 과자를 먹을 수 없지만 좀 더 큰 아이들은 더 많은 단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에는 금요일만 단식하고 하루 5단의 묵주기도만을 청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묵주기도는 15단으로 늘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물과 빵만으로 단식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성모님께서는 "과일을 첨부할 수 있다."라고 하시며 사도신경과 일곱 번의 주모경을 하도록 단계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6년 동안 성모님의 발현이 있었음에도

누군가 이제서야 기도와 단식을 시작한다는 이유로 메주고리예를 탓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질문 : 교수님의 가족들도 메시지를 실천하십니까?

마크 교수 : 우리 가족들은 매일 미사와 아침 저녁 기도, 그리고 매일 10단의 묵주기도와 오후 3시에 자비의 기도를 하면서 메시지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모님 말씀처럼 생명의 빵을 받아 모실 수 있는 미사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성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고해성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깁니다. 매주 토요일 우리 가족은 대부분 고해성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수요일과 금요일은 단식하며 최소한 고기와 단 것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로마에서 유학하던 때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쯤이었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 좀 봐줘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단식을 중단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잠을 청했는데, 고문이었습니다! 그 때 깨달은 것은 가정성화의 도구로써 단식을 생활화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고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가족과 저녁을 먹기 때문에 저녁 식사까지 물과 빵으로 단식하면서 각각의 아이들이 특별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세심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메시지에서 시키는 대로의 단식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다음호에 계속) □



메주고리예 음악과 함께하는 은총과 치유의 시간에 초대합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 월례 미사 및 성시간

일시: 매월 세번째 목요일 오후 7시 (묵주기도 – 미사 – 성시간)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02-6374-2200

문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Tel : 02-2281-3236 / 010-7310-9678, 010-9922-5936

Fax : 02-2281-3245

e-mail : qpmmkr@gmail.com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어머니 마리아의 특별한 정원

김준홍 분도

이제 일년이 지났습니다. 아장아장 걸어 다니기 시작하는 늦동이 아들 로사리오가 이제 몇 일 뒤면 첫 돌을 맞게 되는군요. 일년 전 이맘때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아기를 데리고 워싱턴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가족이 2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무리 하고 한국으로 돌아 오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감회와 감사를 주님과 성모님께 드렸던지 ….. 비행기 창너머로 점점 멀어져 가는 미국 땅을 바라 보면서 지난 2년간의 생활을 주마등처럼 돌아 보았습니다.

부산의 한 의과대학에서 심장내과 교수로 일하던 저는 갑자기 미국 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지만 뜻밖에 미국의 큰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가 성령강림 주일 미사 때 성령의 은사를 제비 뽑기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급박하게 진행되는 일련의 변화가 혹시 주님의 섭리라면 그 표시로 '지식'의 은사를 뽑게 해달라는 화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뽑은 은사가 '지식'이어서 많이 놀랐고 동시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 연수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3~4 달 뒤 저는 가족과 함께 워싱턴 DC에 인접한 메릴랜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메릴랜드(Maryland)가 '성모님의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미국 생활이 처음인 저는 막연하게 가진 걱정 중의 하나가 '미국은 개신교 국가라서 신앙생활이 소홀해 지지 않을'

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저의 단순한 기우였습니다. 저의 집 근처에는 5~10분 이내의 거리에 성당이 네 다섯 군데나 있었고, 제가 일하던 연구소 (NIH, 미국립 보건원)에는 매일 오전 11시 15분이면 미사가 있었습니다. 저의 식구들이 다니던 한인 성당 역시 얼마나 열심한지 한마디로 신앙의 꽃이 만발한 정원 안에 있는 듯하였습니다. 이러한 멋진 신앙의 환경 안에 저희 가족을 초대하여 주신 성모님은 더욱 큰 만남으로 저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다락방' 모임과 같은 성모님의 기도 모임을 갖고 싶어했던 저는 우연히 미사 후 함께 했던 분들(아브라함, 멜라니아 부부님)에게 '평화의 모후' 기도회 모임을 소개 받았습니다. 그 모임에 함께 하던 몇 가정들은 모두가 얼마나 열심한 마음으로 성모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지내는지 저에게는 큰 도움이고 배움의 장소였습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큰 현존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어머니 마리아와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주, 두 주 기도 모임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점차 저는 이 기도모임이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생활하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주고리예' 그 곳은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 성모님의 특별한 현존이 있는 곳이고 은총의 장소라는 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곳으로부터 펴져 나오는 어머니 마리아의 강한 손길을 저의 영혼 깊

성모님의 사업을 위해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유일한 우리의 계획입니다.

숙한 곳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참여하고 있던 기도 모임을 통해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평화의 모후 선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 그레고리오 회장님과의 첫 만남은 펜실베니아주의 공사 중에 있는 '어머니 마을'을 방문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첫 만남이 정말 잊혀지지 않았는데… 저는 그때의 황당하기까지만 한 신뢰와 믿음의 현장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대공사인데 …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바쳐 그 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남그레고리오 회장님과 가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모님께 대한 사랑과 의탁의 마음이 없다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어머님의 사업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그냥 황량해 보이기만 한 별판에 조금씩 조금씩 어머니 마을의 모습이 갖추어져 가지고 있는 모습을 대하면 그저 '아멘' 하는 감탄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성모님의 사업을 위해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그분의 이끄심에 내맡기는 것,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계획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던 회장님의 신앙에서 하늘 나라의 청사진을 보게 되었던 거지요.

이 후 저희 가족은 평화의 모후 지도 신부님이신 신경남 신부님과의 만남과 기도의 시간과 메주고리예의 요조 신부님과 함께 지낸 뉴욕에서의 피정, 메주고리예의 로사리아 수녀님의 어머니 마을 방문 등을 통해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40을 조금 더 지난 이 나이에 돌아보면 그때만큼 진한 신앙의 체험을 느껴본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땐 어렵고 평坦치 않았던 가정 환경과 나이가 들어서는 마치 전쟁 같은 사회생활에 저도 모르게 거칠어지고 모나 있었던 제 영혼, 그렇지만 신앙에 나타해 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쓰던 노력을 성모님께서 직접 감싸 안고 위로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니의 품을 그리고 연민의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애정어린 눈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년간의 미국 연수기간은 제게 2년간의 은혜로운 '피정'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응급환자와 바쁜 학교의 일에 둘러싸여 허둥거리는 한국의 일상으로 돌아온 저에게는 한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가족 모두가 성모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막내 '로사리오'입니다. 뜻하지 않게 가지게 된 늦동이… 처음엔 많이 놀란 것도 사실이지만 성모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며 아내와 저는 점

점 근심에서 기쁨으로 아기의 출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모승천 이를 뒤 태어난 아기를 바라보면서 저희 부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늙은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이미 중학생인 형과 누나의 귀여움까지 독차지 하고 있는 늦동이 아들은 제게 미국에서 보낸 은총의 시간들을 되새기게 해줍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부산에 있는 저희 집에서 '평화의 모후' 기도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조촐한 모임이지만 성모님께서 저희 기도회 모임을 기쁘게 보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계시는 신경남 신부님과 남회장님 내외분께서 이곳을 다녀가시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기도회 식구들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의 표징인 메주고리예에서 성모님의 특별한 현존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오기 직전 '어머니 마을'에서 기도회 식구들과 신경남 신부님과 함께 가셨던 기도 시간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저녁 하늘에 아름답게 드리워진 무지개로 화답하여 주시는 성모님의 미소를 모두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 펜실바니아에 건립 중인 '어머니 마을'은 성모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많은 사람들의 안식처로 탄생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은 성모님의 손길과 보호를 느낄 수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특별한 정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그곳에서 계속적인 성모님의 이끄심과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저희 가족의 미국 연수 생활 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던 메릴랜드 기도회 식구들과 평화의 모후 선교회 식구들 그리고 구역 본당의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이 글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M**



나를 사랑한 성모님 하늘 엄마

김정식 로제리오
생활성가 가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내게 노래를 주신 하느님,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노래와 삶을 나누는 재능을 주신 하느님께서 그 길에서 나를 늘 기다리신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늘 엄마와 함께.

신기루처럼 다가온 성모님 노래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다음, '프라도 사제회' 관심자였던 나는 성소 지도를 해주시던 오영진 신부님(현재 프랑스 생드니 교구 주교)의 권고로, 경북 구미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지내는 사목자를 동반하고 있었다. 1978년 제2회 MBC 대학가요제에서 자작곡 '약속'으로 은상을 수상했지만, 노래를 계속하기보다는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 살고 싶은 열망이 그분의 부르심이라 믿었기에 실천적인 삶을 얼마간 살아 보기로 한 것이다.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청년들이 찾아왔고, 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쳐서 함께 기타 미사를 드리기도 했다.

1982년 이른 봄, 몇몇 청년들과 함께 성당 마당의 공터를 일구어서 꽃밭을 만들었다. 5월 '성모의 밤' 행사를 때 우

리가 직접 가꾸어 피워 낸 꽃을 봉헌하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자는 제의에 그들은 순순히 동참해 주었다. 화원에 가서 한련화와 안개꽃, 해바라기와 봉숭아 씨앗을 사서 심었고 매일 정성껏 물을 주었다. 5월이 되자 안개꽃이 꽃밭 가득 피어났다. 5월 15일 밤에 있을 '성모의 밤' 행사를 위해 아침부터 안개꽃을 꺾었는데, 너무 많아서 손으로 꺾지 못하고 낫으로 베어 낼 정도였다. 꽃병에 꽂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이어서, 성모상 양 옆에 향아리를 두 개 옮겨다가 가득 담아 두었다. 그날 밤, 모두를 사로잡은 것은 단연 안개꽃 향아리였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사람들은 줄을 서서 사진을 찍었다.

경사는 꽃 잔치만이 아니었다. 작곡 공부는 물론 음악에 관한 어떤 공부도 특별히 한 적이 없는 내게 노래는 늘 신기루처럼 다가왔다. 감흥이 고조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주 짧은 순간 완성된 노래가 머릿속으로 지나가고, 그렇게 한 번 입력된 내용은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다. 안개꽃을 베어 내면서도 절로 노래가 떠올랐기에 악보를 만들어 청년들과 즉석연습을 했고, 그날 밤에 꽃과 함께 봉헌되었다.

라일락꽃 향기 짙은 푸른 오월에
사랑스런 하늘 엄마 보고 싶어요.
이 세상 모든 형제 하늘나라 오라고
언제나 우리 위해 기원하시는
영원한 사랑이신 하늘 엄마께
안개꽃 사랑 옆에 드리고 싶어요.
종달새 소리 맑은 푸른 오월에
아름다운 하늘 엄마 그리워져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께 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아름다운 친구이신 하늘 엄마께
진실한 사랑 옆에 드리고 싶어요.

김정식의 자작곡 「하늘 엄마」의 가사 전문

우리는 그날 밤에 기타를 치며 이 노래를 봉헌하면서 참으로 행복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은 모두가 성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누었다.

개신교에 나눈 성모님 은혜

우리가 누린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다음 날 인근에 있는 개신교회 13곳에 전화를 걸었다. '가톨릭 신자들은 5월 한 달을 성모성월로 정해 놓고 성모님께 공경과 사랑을 드리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님께 드리는 공경과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가톨릭 신자들과 성모님의 관계는 개신교회에서 알고 있는 왜곡된 내용과 다른데 진실을 만나고 싶지 않은가? 원한다면 청년들과 찾아가서 위의 내용을 나누며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다.' 목회 책임자에게 대충 이런 요지로 말했는데, 대부분 말하는 도중에 전화를 끊어 버리거나 다 듣고 나서 관심이 없다고 했다.

다행히 세 개의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다. 평일 저녁에 있는 수요 예배 후에 청년들과 기타를 들고 가서 노래를 불러 주며 나눔을 했다. '노래 안에 담긴 내용처럼 성모님은 우상숭배라거나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에, 대부분의 개신교 신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분은 구원 사업에 적극 협력하셨고 이 땅에 오신 하느님을 넣고



제주 동광성당 봉헌음악회

키우신 분이기에 공경과 사랑을 드리고 싶은 것이다.'

끝나고 난 후에 개신교 신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그런 사실을 지금까지 전혀 몰랐다고, 아무도 그렇게 말해 준 적이 없었다고 했다. 어떤 목회자는 내게 '오늘 나눈 내용이 가톨릭교회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개인의 생각'인지를 진지하게 물었다. 개신교 지도자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래를 통해 삶의 영성을 나누며

요즘도 나는 간간이 개신교회에 초대되어 이런 나눔을 한다. 올 성모성월의 막바지에는 대전 신학교 교수 목사님의 주선으로 만난 목회자와 신학대학원생 연수에 초대되어 내가 만든 생활성가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다. '가톨릭 신자가 생각하는 성모님'에 관해 나눔을 한 다음, 'AVE MARIS STELLA'(별이신 마리아)라는 그레고리안을 들려주었다. 진지하게 듣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다.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팔아먹었다는 일본 사람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누구나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오해와 편견을 갖기 쉽다. 그렇다면 벗어나는 길은 하나다. 잘 알게 해주는 것이다. 어떤 기회에 어떤 방법으로 잘 알게 해줄 수 있을지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늘 따뜻하게 열린 가슴으로 다가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진정한 나눔을 한다면 길은 어디에나 열려 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내게 노래를 주신 하느님,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노래와 삶을 나누는 재능을 주신 하느님께서 그 길에서 나를 늘 기다리신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늘 엄마와 함께. M

(위의 글은 <성모기사>8월호에 실린 생활성가 가수 겸 작곡가로 활동중인 김정식 로제리오씨의 체험담으로서 cafe.daum.net/cchereandnow에서 발췌했습니다.)

교회는 메주고리예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메주고리예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곳!

요셉 비안네 페르난도 주교 (스리랑카 주교회의 의장)

질문 : 주교님께서는 이곳 메주고리예를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요?

주교님 : 발현 초기부터 이곳에 오고 싶었습니다. 저는 1981년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발현이 시작된 2년 후 주교로 서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주고리예에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놀라운 체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교님, 꼭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으며 많은 곳에서 저를 이곳으로 초대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로마 근교의 짤레스트리나(Palestrina) 교구의 친구 사제가 저에게 "다음에 또 유럽을 방문하실 기회가 생기면 꼭 메주고리예를 가셔야 합니다. 고스파(성모님)께서 주교님이 꼭 메주고리예에 오시길 원하신다고요!"라고 말하더군요. 바쁜 일정이었지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시간이 6일 밖에 없으니 메주고리예는 3일간만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신부가 6일간의 휴가를 전부 이곳에서 보내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

질문 : 6일 동안 메주고리예에서 무엇을 하시며 보내셨습니까?

주교님 : 발현 언덕에 올라가서 2시간 동안 함께 묵주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소를 방문해서 기도하고 본당의 공동미사와 성시간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메주고리예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살아 있는 영적인 분위기와 체험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제가 주교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겸손하고 단순한 순례자의 한 사람으로 하는 말입니다.

질문 : 주교님으로서 보다 사제로서 이고에서 주신 고해성사와 느끼신 것들을 듣고 싶습니다.

주교님 : 고해성사는 이곳에 와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중 하나였으며 저에게는 매우 놀라운 체험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물질만능과 세속주의가 만연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회개와 희생의 메시지를 주시며 우리가 변화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medjugorje.hr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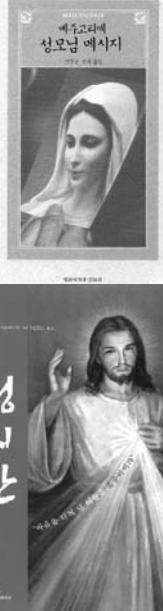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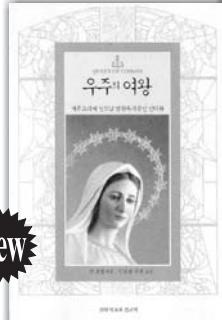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왜 성모님께서는 지난 27년동안 계속해서
메주고리예에 발현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주고자 하시나?
무엇을 부탁하시려는 것일까?

New

이 책에서 목격 중인 6명과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슬라브코 신부는 인터뷰를 통해 진실하고 소박한 언어로
이 질문에 명백하게 대답해 준다.



New

메주고리예 치유의 음악과 성시간



- 은혜로운 성시간 DVD, 비디오, CD.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 메주고리예 관련 서적 보급
 - 신경남 신부님의 체험담 '메주고리예의 부르심'
-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구입처

- 미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 한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전국 성바오로 딸 및 성바오로 서점, 혜화동 가톨릭 서원 (02-745-8898)
- 카나다 : 이 테레사 (403-288-0469),

미주 가톨릭 출판 서점

세계성서공회와 한국 교회 공동 공용번역으로 새로 나온 성서 안내
(색갈은 검정색, 곤색, 금색 오렌지색)

성경 1. (1단, 대, 일반) 세계성서공회가 발행한 그리스어 신약 성서 번역

성경 2. (1단, 대, 금장, 색인, 지폐) 전용박스포장 검정색

성경 3. (1단, 특대, 금장, 색인) 성인용: 큰 글씨체로서 어르신들께 좋습니다.

성경 4. (2단, 대, 금장, 색인, 지폐) 한 페이지에 두 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두께가 얇습니다.

성경 5. (2단, 46판, 금장, 색인, 지폐) 한국 교회 공용 번역으로 매일 미사 책 크기)

성경 6. (2단, 일반 포켓용) 한국 교회 공용 번역본으로 일반 포켓용

성경 7. (2단, 포켓, 색인, 금장, 지폐) 포켓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편리합니다.

부활절 15% 할인도서

-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류해운 신부 지음 / 210면)
- 함께 걷는 하느님과 인간 (이영현 신부 지음 / 218면)
- 엄마의 화살 기도 (두송 역음 / 소책자)
- 생활교리 (개정판 신부 생활 안내 / 562면)
- 그래도 뭉다 한 말 (김병열 신부 유고 집 / 252면)
- 지혜로운 삶 (침포 리스트지음 / 246면)
-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의 기르침 (파울라 지음 / 243면)
- 가족을 위한 엄마의 삶지기의 길 (수도회 역음 / 소책자)
- 내 삶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8 단계 (마태오 린 지음 / 303면)
- 미사를 통한 치유 (로버트 드그린디스 지음 / 136면)
- 배꼽 없는 사람은? (권상혁 역음 / 192면)
- 연옥 실화 (막심 푸랑 지음 / 190면)
- 뜻을 알면 전례가 새롭습니다 (정의철 신부 지음 / 157면)
- 가장 행복한 약속 (벽묘안 영식 신부 지음 / 125면)
- 내 안에 밀쓸이 (이동호 신부 지음 / 208면)
- 십자가 성 요한과 함께하는 기도 (웨인 짐 지음 / 135면)
- 하느님의 사람 피에트렐чин이의 비오신부 (보스코 지음 / 소책자)
- 행복을 위한 선택 (최기산 신부 지음 / 소책자)
- 성처 입은 사슴 (윌리엄 존슨 지음 / 230면)
- 하느님을 향하여 (최기산 신부 지음 / 소책자)
- 화제대로 내기 최기산 (버트 게찌 지음 / 소책자)
- 이기 예수 데레사의 정신 (리아그로 신부 지음 / 244면)
- 한 송이 해바라기처럼 (고마태오 신부 지음 / 168)
-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 (이해인 수녀 지음 / 284면)
- 도토리 키 재기 (변 회선 신부 지음 / 소책자)
- 성령의 열매 9가지 이야기 (보비 리드 지음 / 160면)
- 자동판매기가 되신 하느님 (김영진 신부 지음 / 350면)
- 이역하늘 아래서 (이석현 지음 / 185)
- 관상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 (토마스 키딩 지음 / 175면)
- 하느님 나라는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토마스 키딩 지음 / 139면)
- 주님의 기도로 관상까지 (부르고뉴 가르멜 수녀원 지음 / 295면)
- 우리가 예수를 찾는 (사는) 이유는? (이재민 지음 / 1 & 2면)
- 토마스 마틴의 씨앗 (토마스 마틴 지음 / 223면)
- 우주를 알면 하느님이 보인다 (정진석 추기경 지음 / 302면)

책 판매 수익금은 박창득 몬시뇰님의 북한 선교를 후원하는 곳에 사용됩니다.

☎ 973-672-6335 팩스 973-672-0509 E-mail : meejoobook@yahoo.com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예 성모님께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 가톨릭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은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회개, 신앙, 기도 그리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예' 발행 및 무료보급
- 2. 신앙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예 순례 안내
- 3. 메주고리예 관련 서적 출판 및 보급
- 4. 메주고리예 성모님 메시지 전파를 위한 미디어물 제작
- 5.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육성 및 운영
- 6.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7. 메주고리예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8. 기타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본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선교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저희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예'를 보내드립니다.
- 2.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와 메주고리예 순례 때에 모든 회원들과 회원 가정을 위한 특별 미사를 봉헌합니다.
-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를 통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 5.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IRS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평화의 모후 선교회 회원가입서

영문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A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전화(H): _____ 전화(O): _____ 날짜: 년 월 일

E-mail: _____ 소속 분당: _____

회원번호() 가족과 친지들에게 성모님의 매달 메시지와 소식지를 보내기 원하시는 분은 선교회로 연락하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대우, 강동우, 강요셉, 강은미, 강헬레나, 강찬구, 고영아, 권영, 곽복화,
김건일, 김경순, 김경희, 김금성, 김글라라, 김남숙, 김테레사, 김마데라,
김만춘, 김명대, 김미희, 김부용, 김사도요한, 김상원, 김성해, 김세록, 김세실
리아, 김소영, 김수도 다윗, 김시순, 김아네스, 김안숙, 김영서, 김영숙, 김영혜,
김옥희, 김우정, 김윤희, 김은미, 김임직, 김인환, 김주희, 김준애, 김춘자, 김태자,
김태화, 김학실, 김혜정, 김홍성, 김효신, 김효정, 김희성, 노마리아, 노순재, 노안나,
노영란, 류지완, 문방자, 민병돈, 민정숙, 민헬레나, 박경윤, 박금자, 박규현,
박동준, 박문수, 박순자, 박연희, 박영미, 박영실, 박영희, 박병칠, 박혜선,
박청희, 백안셀모, 서순희, 손은하, 송데레사, 송정순, 신순덕, 신알렉스,
신영식, 신의균, 심세실리아, 안소영, 안용선, 안희숙, 안현숙, 엄경숙, 엄선미,
엄봉화, 엄신자, 엄충모, 엄토마스, 여애경, 연재희, 오모니카, 오미정, 오서왕,
오순이, 오순옥, 유베로니카, 유연실, 유연호, 유애영, 유제영, 윤경이, 윤정숙
윤멜라니아, 윤프란체스카, 윤헴분, 윤현옥, 이금선, 이동우, 이문자, 이마리아,
이미숙, 이미애, 이수은, 이순세, 이순자, 이요셉, 이요한보스코, 이위순, 이유섭,
이은경, 이은주, 이은희, 이인순, 이윤영, 이정희, 이재열, 이종수, 이종숙, 이진
민, 이창호, 이해연, 임효경, 임카타리나, 장영희, 장효숙, 장카타리나, 잔순윤숙, 전문석, 전연희, 전현숙, 정광선,
정명좌, 정명화, 정영화, 정준자, 정혜경, 조안나, 조용옥, 주민자, 주태형, 지현남, 진도미니카, 최경숙, 최동숙,
최바르바라, 최상환, 최영자, 최윤희, 최인자, 최정신, 최종금, 최중환,
팽정숙, 표상순, 한경숙, 한데레사, 황계자, 황로사, 황정애, 황혜정,
허정희, 현혜심, 흥경자, 흥성옥, 흥옥선, 흥지영, 무명,

Y. L, Paul & Mary K. Lee, Yoon Lee, Eileen Cho, Heung C Park,
Insuk Mullins, Henry Yerger, Okson Baker, Bong S. Chang, David Burger,
Renee S. Kim, Kyung Cheon, K. Larcenaire, Son Young More, Mee K Kang,
Myung Lee, Tak U. Lee, Chong S. Gamble, Rosa Scott, Elly S. Sunwoo,
Song Kim, Insuk Mullins, Grace O'gorman, Yoon H. Lee

44호 소식지의 부족금을 보내주신 회원님과 성모님의 메시지 둑상지
'평화의 모후'를 칼라로 인쇄해주시는 회원님(한국)께 감사드립니다.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지난호 후원금	\$10,863.86
지출 :	
메주고리예 소식지, 메시지 둑상지,	
후원회원봉투 인쇄	
통신비, 교통비,	
사무용품 및 기타 비용	\$15,596. 89
잔액	- \$ 4,733.03



"누가 막시밀리아노 성인께 고통 당하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기쁨을 가르쳐주셨습니까?
그분은 다름아닌 성인께서 모든 것을 의탁하신
우리의 성모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의탁하면,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기쁨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 마더 데레사 –



Queen of Peace Missionaries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Return Address Service Requested

www.qpmm.org

사랑하는 부처님과 함께
오늘 나는 내가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너희를 초대합니다.

여러 자녀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실천하고 온 세상에
전해 주기 바란다.

나의 어린 자녀들이,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이가 마음으로
빛과 구원의 길을 떠나들어가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다

PRSR STD
US POSTAGE PAID
ALBRIGHTSVILLE, PA
PERMIT NO. 4